

품사 문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체언 쪽 봤으니까 체언하고 관계언, 조사 쪽 봤죠?

오늘 용언인데 용언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많지만

보기를 통해서 계속 왔다 갔다 비교해보고 견주고 해야 되는 문제도 사실 많아요.

특히나 어미 쪽에서 그러한 경우가 많죠.

보겠습니다.

22번,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런 식의 구분이 필요하죠.

우선은 의미로 구분하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작만 생각하면 안 된다.

과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2번부터 밑에 있는 재료들

다 이용해서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다시 1번, 의미로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로 구분하는 방법이 일단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유용한 방법,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형 어미 사용의 구분인데 현재형 어미 같은 경우는 종결 어미의 경우는

ㄴ -다/-는다를 붙여보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관형형 어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형형 어미로 는을 붙일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이런 거.

그다음에 명령형이나 청유형 어미.

예를 들면 -아라/어라, -자와 같은

명령, 청유형 어미를 붙일 수가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였죠?

그다음에 의도를 나타낸다고든지 아니면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목적을 나타내고자 하는 연결어미죠.

-(으)러/-(으)려를 붙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로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애나 애나 애나 이런 방식들이 가능하면 동사인데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형용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다섯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다섯 번째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따끈따끈하죠?

작년에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과거형 선어말 어미.

이거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별표를 쳐놨지만,

문제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과거 선어말 어미.

-았이나 었이나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간, 과거 선어말 어미가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동사로 본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잘생기다, 라는 단어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잘생기다, 라는 단어는 2, 3, 4 하나도 안 맞아요.

잘생긴다, 잘 생기는, 잘생겨라, 잘생기자, 잘생기러 갔다, 잘생기러 한다.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애네들에는 적합하지 않으면 형용사겠네요?

이게 아니라 이 잘생기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과거 선어말 어미를 붙이면

잘생겼다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먹다 같은 경우에는 먹었다, 이렇게 과거 이야기지만

잘생겼다, 라고 하면 그게 과거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인 의미를 지니게 돼버려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과거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적 의미를 지니게 됐다?

그것도 동사로 보겠다, 라고 작년에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 잘생기다 같은 경우는 찾으시면 동사로 나옵니다,

사전에 실체로.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거면 동사 아니면 무조건 형용사.

이렇게 판단을 하면 너무 편협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재료들은 외워주는 게 분명하고

2, 3, 4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가장 실용성 있게 쓰는 건 2번이에요.

우리 고등 수준에서는 아마도 2번 정도로 해결 볼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로 구분되는 것들로 재료를 많이 줄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 때 22번은 사실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밑에 보세요.

당연히 ~하려 한다, ~아라, ~하자.

또 진행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건 의미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동작이 진행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고, 있, 다를 썼을 때 그게 동작의 진행과 관련된 것이냐.

먹고 있다 그러면 동작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라면 여러분, 전부 다 동사쪽으로 본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건 1번, A랑 B가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가보도록 하죠.

보기를 바탕으로 용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판단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1번 가보도록 할게요.

㉠과 ㉡으로 봤을 때 한 용언이 홀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용언과 어울려 쓰이기도 한다.

㉠의 경우에는 덩다가 단독으로 쓰였지만,

㉡의 경우에는 보조 용언인 오다가 결합되어

더워오다로 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의 경우는 뒤에 용언이 앞에 용언의 의미를 보조하는 역할.

우리 이런 용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조 용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용언이 단독으로 쓰이는 건 그냥 본용언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런데 본용언과 본용언이 결합되어 쓸 수도 있겠지만

본용언 뒤에 보조용언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보조용언은 항상 본용언 뒤에 오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본용언의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더워오다의 경우에도

앞서 나오는 건 무조건 본용언이에요.

용언이 연달아 왔을 때.

그 뒤에 나오는 게 본이나 보조나만 판단하면 되는 건데

이때 오다 같은 경우에는 보조용언이 분명하죠.

예를 들면, 이거는 아예 한 단어여서 결합이 되는 거고.

애매하죠?

이렇게 가볼게요.

이 문장이랑, 10년 동안 간장을 만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다음에 친구가 어제는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왔다.

이 차이 아시겠죠?

봅시다.

앞에 있는 만들다는 무조건 뭐다? 본용언이다.

뒤에 나와 있는 오다 중에서 보조용언은 어느 쪽?

이놈은 보조용언이죠.

그러나 애는 본용언이라는 거죠.

어떻게 판단합니까?

둘 다 오다인데 이 오다가 가지고 있는 이동성의 그 뜻.

공간을 이동한다는 기본적인 의미는 여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어제는 종이비행기를 만들어서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에 이 결합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에 뭘 집어넣을 수도 있죠.

친구가 어제는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우리 집에 왔다라든지

아니면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빨리 왔다라든지

중간에 뭐가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애 같은 경우에는 그는 10년 동안 간장을 만들어 빨리 왔다.

그는 10년 동안 간장을 만들어 우리 집에 왔다.

선생님 되는데요?

만약에 된다면 개는 본용언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의 오다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드는 행위의 지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용언하고 보조용언은 차이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의미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지금 판단하면 되는데.

따라서 지금 2번 답지의 내용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지금 더워 오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워서 애가 어디 이동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더운 것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조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3번, ㉔으로 봤을 때

문장 안에서 두 용언이 모두 실질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띄어 써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즉 본용언과 본용언의 관계일 때.

여러분, 이것도 외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띄어쓰기.

뒤에 바로 문제 나오니까 또.

본용언과 본용언.

이렇게 되어있는 거.

선생님이 사실 아까 전에 여기 예문으로 뭘 적으려고 했냐면,

이거를 적으려고 했다가 빨리 생각을 바꾸고 안 쓴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애는 본용언, 본용언입니까?

아니, 애는 한 단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선생님은 사전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다랑 오다, 라고 하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어서

이미 하나의 표제어로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한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띄고 안 띄고가 없죠.

그냥 한 단어인데 당연히 붙여 써야지.

그런데 본용언, 본용언, 본용언, 보조용언은

이 단어는 사전에 찾으면 안 나와요.

즉 만들어오다를 사전에 찾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더워 오다 찾아봤자 안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단어와 단어가 그냥 이어서 쓴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때 본래는 그냥 띄어 썼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본용언과 본용언의 관계라면 붙여 쓸 수는 없어요.

붙여 쓰면 안 돼요.

만약에 선생님, 본용언, 본용언인데 왜 붙여 썼나요?

그거는 합성어라는 이야기예요.

분명 여러분 보기에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붙여 쓴 게 있다?

그러면 개는 그냥 합성어예요, 한 단어.

하나의 단어.

그런데 애는 두 개의 단어.

띄어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용언하고 보조용언이야.

그러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붙여 쓰는 것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예요?

이거 외우는 건데, 이거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 여기 앞에 있는 본용언이면 역시나 어간하고 어미가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여기 본용언에 어미가 뭘니까?

더위에서의 어미가 뭐예요?

어쨌.

ㅂ 불규칙으로 어가 된 거죠?

이러면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본용언, 보조용언 관계일 때 연결어미가
계도 올 수 있고 고도 올 수 있고 하는데 그런 건 못 붙여.

뭐일 때?

본용언의 연결어미가 -아/어, 예를 들면 하나 계열이면 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일 때 붙여 쓸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조용언의 형태가

의존명사+접미사인 -하다나 싶다가 만들어진 경우.

예를 들면 이런 유형이죠?

~하는 척하다, ~할만하다, ~할법하다, ~할듯하다, ~할듯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는 척하다, 라고 했을 때

원래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앞에 본용언, 애네들은 다 보조용언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보조용언일 때는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는척하다, 이렇게 붙이는 것도 가능.

일단 이거 띄어쓰기 규정도 좀 외워주시고.

그러면 일단 3번 답지는 두 용언이 모두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용언과 본용언 관계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맞다는 거고요.

다음 4번에 보게 되면 ㉠과 ㉡은 모두 ㉢처럼 의미가 성립하는

두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안 되죠.

왜냐하면, 본용언하고 보조용언 관계는 찢으면 안 돼.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하나의 서술어예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본용언과 본용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두 개의 서술어예요.

그래서 친구가 어제는 종이비행기를 만들었다.

친구가 어제는 왔다, 이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는 그는 10년 동안 간장을 만들었다.

그는 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보는 거죠.

다음 5번에 보게 되면 두 용언이 어울렸을 때 연결어미로 어떤 게 보였어요?

㉠에서는 아, 어가 있었고 ㉡은 고가 있었죠.

그래서 아나 어나 고나 게나 이런 것들이

본용언하고 보조용언 사이에는 연결어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24번 문제가 바로 지금 설명한 그 내용과 관련되어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알고리즘 표를 보면

첫 번째,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냐에 예면 합성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붙여 써야 되는 단어가 됩니까, 아예.

따라서 1, 2, 3중에 하나.

다음, 아를 아서로 바꿀 수 있느냐가 무슨 문제예요?

아를 아서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어를 어서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냐는 거잖아.

그게 예가 된다는 건 본용언과 본용언의 관계일 때겠죠.

따라서 ㄴ에 들어갈 단어는 본용언과 본용언의 관계여야 됩니다.

따라서 본용언과 본용언은 붙여 쓴다, 띄어 쓴다?

무조건 띄어만 쓴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1번.

맞습니까?

㉡의 경우에는 아니래요.

즉 아서를 못 쓴대요.

즉 만들어서 왔다고 쓸 수 없대요.

이건 만들어오는,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왔다가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띄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때는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역시 닳아가다가는 띄거나 붙이거나 두 가지 가능한 정답은 1번이죠.

또 25번 잘 보세요.

여기에서 확장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점차 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정보를 확장시켜줍니다.

이제 2014년도의 6월 평가원에 이 정보를 배웠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출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익혔을 거야.

그러면 2015년에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하면서 내는 건데

이제 이 지식을 익힌 상태에서 띄어쓰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 잘 보세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에서 1번이나 2번의 케이스라면

붙여 쓰는 게 가능하다고 했죠.

25번 보기에는 그런데 못 붙이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런데도 못 붙이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라고 합니까?

첫 번째, 조사가 결합되어있는 걸 먼저 이야기하나요?

앞말에 조사가 붙어있는 경우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사이에 조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또 앞쪽이 합성용언일 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이야기하나요?

본용언, 보조용언, 보조용언 관계?

그 이야기는 안 하죠?

여기까지 일단.

그러면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거 설명드릴게요.

조사가 더 들어가 있는 상황.

여기는 조사 들어가기 좀 애매하죠?

일단 적용해봅시다.

1번부터 가볼게요.

불이 활활 타던 불이 꺼져가다.

이때의 가다는 본이야 보조야?

어디 가는 거 아니야.

꺼지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가다는 보조예요.

그러면 연결어미가 뭘니까?

꺼지-어.

육 같지만 불이야.

그래서 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연결어미가 어이기 때문에 본, 보조 관계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인데.

따라서 1번 설명은 맞아요.

그다음에 2번과 3번이 같은 맥락이에요.

잘 보세요.

밀어내버렸다와 덤벼들어 보았다 잘 보세요.

밀어내 버렸다, 덤벼들어 보아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료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조.

다음, 덤벼들어, 눈으로 봐? 아니야.

그러니까 시도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보조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게 본용언이 되는 건데

문제는 합성 용언이라는 거예요.

애는 밀다와 내다의 결합형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밀어내다, 라고 했을 때 밀다와 내다의 결합이에요.

그다음 애는 덤비다와 들다의 결합이에요.

맞습니까?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보기에 설명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문제를 냈다는 건 사전에 밀어내다, 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밀어내다, 라는 단어가 이미 있다.

그다음 덤벼들다, 라는 단어가 이미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고민할 게 사실 아니야.

보기에 의해서 애가 합성용언이라면 이러면 여기에 연결어미가 결국 뭐예요?

밀어내다+밀어내어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밀어내가 됐으니까 사실 어가 있는 거고

여기도 덩벼들어니까 덩벼들 뒤에 뭐야? 어가 있어요.

그러면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연결어미가 어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에 맞춰서 붙여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앞에 있는 본용언 부분이 단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 결합된 형태.

즉 합성 용언이라고 본다면.

밀어내다나 덩벼들다처럼 합성용언으로 보면 붙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너무 길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조건이 지금 보기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우세요.

그런데 선생님, 이게 합성용언이에요, 라는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상관없다.

여기 지금 보기에는 조건이 없지만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본용언+보조+보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뛰어올 듯하다와 같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

떡어 볼 만하다로 갈게요.

예문 잘 보세요.

본용언이에요, 떡다.

그런데 떡어보다 이러면 이때의 보다는 눈으로 보다가 아니라 시도니까

이건 보조용언이에요.

만하다 뭐라고 했습니까?

보조용언이에요.

그러면 본, 보조, 보조인데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붙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까지밖에 못 붙여요.

즉 앞에 있는 본+보조는 연결어미가 어이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데

선생님, 뒤에 만하다도 붙일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되어있을 경우에는 뒤에는 못 붙인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뭐 때문에? 길기 때문에.

너무 길어진다는 의미 때문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붙여 썼을 때 원래 합성용언이었는지

아니면 아닌데 붙여 썼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핵심은 결국 뒤에 있는 거.

어떻게든 결합되어있는 구성 뒤에는 못 붙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문제에 수정을 하나 좀 해보세요.

뭐냐하면, 보기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걸 어문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합성용언인 경우로 바꾸셔야 돼요.

즉 합성 동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랑 애는 합성 동사예요.

그런데 합성 형용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단어 붙일 수 있냐, 라는 문제예요.

먹을 듯하다 그러면 붙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없을 듯하다 못 붙여요.

왜 그리냐면, 애가 합성 형용사예요.

일단 이 다시없다, 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다시없다 형용사인 건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전에 형용사, 동사 구분할 때

다시없어라,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가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되면

부사에 없다고 하는 형용사의 결합이거든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기 때문에 형용사에 해당하는 예이고 합성용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문 규정이 바뀌었던 게 합성 동사뿐만 아니라

합성 형용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붙일 수가 없어요.

왜? 합성용언이기 때문에.

따라서 2번하고 3번은 조건이 맞습니다.

띄어 쓰는 것만 맞고 붙여 쓰는 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4번, 조사가 결합되어있죠.

읽어보다는 읽다 본용언, 보다 보조용언인데

읽어도, 라고 하는 조사가 있으면 이걸 붙여 쓸 때 너무 어색하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4번의 경우에는 띄어만 쓰는.

앞엿것만 맞고 뒤엿것은 쓸 수가 없다.

5번의 경우에는 기록해 두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성어 아니에요.

하다는 접미사이기 때문에 기록하다는 한 단어.

그다음 애는 기록하+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연결어미가 여이기 때문에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아요.

여러분, 지금 24번하고 25번 문제가 딱 1년 차이인데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면 다음은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런 보기를 주지 않아도 풀 수 있을 만한 능력이 함양되기를 바라고 낼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문법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잘하셔야 되는 게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이 시간이 아까워서 말도 빨리하고 설명도 빠르게 나가고 있긴 하지만

이건 다 개념 설명할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건 이 문제를 풀 때

자꾸 보기에 의존해서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이야기했던 게 이거였는데, 라는 기억을

떠올리면서 풀기를 바란다는 거죠.

26번 갑니다.

보조용언 구성 이야기하고 있죠.

-고 있 구조예요.

이렇게 되어있는 거, ~하고 있다 할 때

이게 지금 보조용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보조용언 구성에 -고 있 구성은

A처럼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기도 하고

상태가 지속되어있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가지 의미 모두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의성에서 언급할 때가 있죠.

그래서 형 지금 신발을 신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C에 해당하는 거죠?

신발을 신고 있다 그러면 신발을 신는 행동이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신고 나가서 딱 봤더니 신고 있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신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이때는 C, 두 가지 의미로 모두 해석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 1번에 아빠 들어오실 때 형은 뭐 하고 있었니, 라고 하자

형은 양치질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A가 맞습니다.

다음에 2번, 오빠가 너한테 화가 많이 났나 봐.

오빠는 지금 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해하다, 라고 하는 건 동사야 형용사야?

오해하다는 것은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상태의 지속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알다, 라고 하는 거.

물론 동사나 형용사냐가 중요한 게 사실 아니에요.

둘 다 동사인데.

오해하다 동사고 알다도 동사인데 안다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건 아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잘 보셔야 돼요.

안경 벗고 있어.

만약에 예를 들면 안경 벗고 있다.

이거 C죠.

안경 벗고 있다, 벗은 상태.

아니면 벗고 있다, 진행형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문을 잘 봤어야 돼.

안 그러면 헛갈려.

너 안경 잃어버렸다면 괜찮아?

눈이 아주 나쁘지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눈이 아주 나쁘진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맨얼굴 보여주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한 이야기죠.

설마 야, 내 눈이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아서 안경을 벗고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벗는 중이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벗은 상태여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4번은 B가 돼야 되죠.

그게 틀렸죠.

그다음 5번 답지 보게 되면 저기 신입사원 누구야 그랬더니 저기 있네.

넥타이 매고 있잖아, 라고 했어요.

그러면 넥타이를 맨 상태일 수도 있고 매는 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27번, 이것도 보세요.

2017년 3학년 모의고사에 딱 나오잖아.

이게 똑같아.

본용언, 본용언의 구조냐, 본용언, 보조용언의 구조냐 합성동사냐.

사실 이렇게 문제를 친절하게 내주는 것이

앞선 기출들을 안 풀어본 친구들에게는 고마울지 모르지만

이게 고마운 게 아니에요.

거의 반 페이지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시간을 엄청 쓸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예 내가 문법 모르면 이런 건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보기를 보고, 보기를 훑어보면서

이거 본용언, 보조용언, 합성용언 띄어쓰기 그런 거 문제인가 하고

곧바로 보기를 보고 답지를 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바라는 점이에요.

1번, 사전에 등재되어있다.

그러면 (나)를 보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 집어먹다가 있어.

그러니까 붙여 써야 되는 거죠.

다음, 잊어먹다를 봤더니 이 (나)의 표준 국어 대사전 검색 결과에 없어.

0건이야.

즉 잊어먹다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한 단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잊어먹다, 라고 하는 것은 뭐로 봐야 된다?

본용언과 보조용언 관계다.

그러면 본용언과 보조용언 관계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나 붙여 쓰는 것도 가능, 불가능? 가능하죠.

그게 바로 5번 답지 같은 경우예요.

5번 답지가 사전에 등재된 단어도 아니고

뒤에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띄어 쓰는 것이 맞지만.

즉 보조용언 먹다니까 띄어 쓰는 것이 맞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3번을 보게 되면,

㉠은 각각의 용언이 모두 주어인 그와 호응하고 있으므로

두 용언을 붙여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집어먹었다, 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을 보시면, 그는 그녀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집어먹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집다와 먹다를 따져봤을 때 그와 호응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애네는 뭐가 되는 거죠?

본용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용언과 본용언이라고 한다면

㉠은 붙여 쓸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㉔을 붙여 썼다는 건

애는 본용언, 본용언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합성동사.

그래서 (나)의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합성 동사로 들어가 있고

합성 동사의 예 중에 몇 번이 해당할까요?

1번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가로채어 제 것으로 만들다의 의미로

공금을 집어먹다를 쓴 거잖아.

따라서 3번이 틀린 이유는 뭐다?

애는 본용언, 본용언의 관계가 아니야.

즉 둘 다 주어랑 호응하고 있어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라는 정보가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보는 것이군.

그래서 합성동사로 보고 붙여 쓰는 것이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번을 보게 되면 ㉕은 두 용언 사이에

허겁지겁과 같은 다른 문장 성분을 넣을 수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㉕을 포함한 문장 보세요.

그는 굶주림에 지쳐 땅 위에 버려진 빵을 집어 허겁지겁 먹었다.

즉 집어 000 먹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건 사이가 허술하다는 거.

띄어 쓸 수 있다는 거.

본용언과 본용언이라는 거죠.

만약에 본용언과 보조용언이었다면 사이가 긴밀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의 서술어이기 때문에

사이에다 뭘 넣어줄 수가 없었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용언의 활용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지금 문제 구성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동사, 형용사 구분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거의 배웠던 순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동사, 형용사 구분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본용언, 보조용언 이야기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야기합니까?

규칙, 불규칙에 대한 문제들이 다수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는 어간 불규칙 5, 어미 불규칙 4,

그다음에 어간, 어미 불규칙 1.

이것도 철저히 외우셔야 돼요.

이러면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너무 쉽거든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불규칙 활용을 알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규칙용언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규칙 용언에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건

어미의 변화에 어간의 변화가 없는 것들은 당연히 규칙성에 들어가지만.

어미 결합 시 어간 변화가 전혀 없는 경우도 당연히 규칙 용언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ㄹ-탈락 규칙용언하고 두 번째는 ㄷ-탈락 규칙용언.

이거는 어떤 특정 단어는 탈락하고 안 탈락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규칙, 불규칙이 나뉘어야 되는 거지만

하나 같이 다 탈락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쓰다, 크다, 아프다.

다음에 ㄷ 같은 경우에 울다, 날다, 살다, 별다 많잖아요.

이런 단어들 이야기하는 거였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용언의 불규칙 활용을 따져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 모음 어미와의 결합을 항상 신경 쓰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되죠.

아나 어 같은 거.

그래서 여기에 아나 어를 넣어본다, 라고 했을 때

어를 붙이게 되면 쓰어가 아니라 써.

크어가 아니라 커.

아피가 아니라 아파.

하면서 전부 ㄱ 하나 같이 빠진다는 거.

그래서 이 조건이라면 다 빠지니까 규칙성이라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

ㄹ 같은 경우에 여기는 모음 어미 결합이고

애는 언제 ㄹ이 빠진다?

ㄴ으로 시작하거나 ㅂ으로 시작하거나 ㅅ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오로 끝나는 이러한 어미들이 왔을 때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다 같은 거 넣어볼까요?

그러면 어머니가 울시다가 아니라 우시다.

그다음에 ㅅ으로 시작하는 시를 넣었어요.

하늘을 나시다, 여기 집에서 사시다,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죠?

ㄹ, ㄷ 다 빠져.

또 ㅂ니다 한번 넣어보면 울읍니다가 아니라 읍니다.

ㄹ 빠져.

납니다, 삽니다.

이렇게 오 넣어도 우오, 나오, 사오, 이렇게 쓰는 거고

ㄴ 붙인다고 해도 운 사람, 난 사람, 산 사람.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죠.

날은 사람,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도 중요했었고.

그다음에 불규칙 활용에서 쪽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어간 불규칙으로 어떤 거 있어요?

ㄷ 불규칙, ㅅ 불규칙, ㅂ 불규칙,

그다음에 ㅌ 불규칙, ㄹ 불규칙.

이렇게 있었죠?

그다음에 어미로 4가지.

1번에 여 불규칙.

그다음에 러 불규칙.

그다음에 너라 불규칙 있었고요.

그다음에 4번에 달다 같은 경우에는 오 불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어간, 어미 불규칙.

ㅎ 불규칙.

실제로 문제 내는 거 어미 불규칙 잘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래서 여나 러 같은 거 선호 안 해요.

이쪽을 선호 안 해요.

그래서 주로 선호하는 쪽이 이거예요.

아니면 애랑 애랑 그다음에 一탈락 규칙이랑 견주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이것도 잘 내죠.

ㅎ 불규칙도 참 잘 내는 거죠.

문제를 풀면서 하나 적용해볼게요.

먼저 28번 가보겠습니다.

불규칙 용언을 골라보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닌 거 빼면 되는 거잖아요.

1번에 퍼,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유일한 이 단어.

ㄷ 불규칙 단어는 유일하게 푸다밖에 없어요.

푸 더하기 어가 됐더니 어떻게 됐다?

퍼가 됐다.

우가 탈락하는 불규칙 용언이라는 이야기죠.

왜? 애 이거 불규칙이다.

모든 ㄷ가 다 빠지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 주다 같은 경우에는 어를 붙이면 주어줘가 되잖아요.

그래서 축약이 원칙인데 애는 우가 빠지기 때문에

ㄷ탈락 불규칙으로 보는 겁니다.

1번의 경우에는 어간 불규칙 퍼가 나왔어요.

2번 가겠습니다.

비밀로 물어두었다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어야 돼, 왜?

묻다, 라고 하는 게 질문하다의 묻다였다면

어가 붙었을 때 묻어가 아니라 물어가 되죠.

그래서 ㄷ 불규칙의 경우에는 ㄷ이 ㄹ로 바뀌는 불규칙이잖아요.

모음 어미와 만났을 때.

그래서 그랬을 때 불규칙인데

애는 땅에 묻다, 매장하다의 뜻일 때는 규칙용언이죠.

땅에 물어보았다가 아니라 땅에 묻어보았다가 맞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3번도 ㄷ 불규칙 용언이에요.

들으면서의 원형은 뭐다? 듣다.

그런데 모음 어미 어가 붙었을 때는 들어가 아니라 들어가 된다는 거죠.

4번에 도안은 무슨 불규칙? ㅂ 불규칙 용언에 해당하죠.

왜? ㅂ이 ㅈ나 ㅊ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돕다의 경우에는 아가 결합되었을 때 어떻게 됐다?

도와.

ㅂ이 ㅈ로 바뀌어서 붙어내는 거.

여기서 공부 좀 한 친구들이 여러분, 이거 순경음 ㅂ 있었다.

이건 고대 국어 이야기고 우리 중세 때 국어 공부하면 그런 이야기 해야 되지만

현대 국어만 딱 놓고 보면 그냥 ㅂ이 ㅈ나 ㅊ로 바뀌어서

모음 쪽에 붙는 현상.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이것도 모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잡다처럼 ㅂ 받침 쓰고 있어도 자와가 아니라 잡아, 라고

그대로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규칙용언으로 보고

그런 걸 견주었을 때 돕다가 불규칙 용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ㅂ은 ㅈ나 ㅊ로 바뀌는 변화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4번에 올라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르다+아가 붙었을 때 정상적인 一탈락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된다?

一가 빠지고 그냥 ㄱ가 붙었으면 써,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애도 오라.

이랬어야죠.

그런데 결과물이 오라가 아니라 어간 쪽에 ㄹ이 덧붙여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간 불규칙에 속해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ㅅ 불규칙은 어떤 거 있습니까?

ㅅ이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우리 29번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29번에 보면 전부 다 ㅅ 받침을 쓰고 있는 단어 중에서

아나 어를 붙였을 때 ㅅ이 안 빠지는 거.

정답 1번이죠.

씻다, 어를 붙였더니 씻어.

아무 변화 없어.

그런데 2번부터는 있다, 이어.

ㅅ 빠지죠?

긋다, 그어. ㅅ 빠지죠?

붓다, 부어.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부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붓다는 얼굴이 붓다도 가능하고

물을 붓다도 가능하고요.

둘 다 마찬가지로요.

다른 단어인데 동음이의어인데 표기는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붓다인데 어가 붙었어.

그러면 이거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애는 불규칙 용언이라니까, ㅅ이?

빠집니다.

탈락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얼굴이 부어, 물을 부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뜬금없이, 근본도 없이 얼굴이 부워, 물을 부워.

이렇게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완전 틀린 예문인 거죠.

그래서 ㅅ 탈락하는 것들의 과정을 보시면 결과물이 나와요.

그다음 짓다도 마찬가지로 지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30번,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이거 조건 나옵니다.

어간 불규칙, 어미 불규칙, 어간, 어미 불규칙 나눠봐라.

1번, 솟다가 솟아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낫다는 나아로 활용한다.

ㅅ 탈락 불규칙, 어간 불규칙. ㉠이다.

다음 2번, 얻다가 얻어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엇든다는 엇들어.

ㄷ이 ㄹ로 바뀌는 어간 불규칙, ㉡이죠.

다음, 먹다가 먹어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하다는 하여로 가니까 예문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아로 가는 가다가 가아,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라도 하(아), 이랬어야 되는데

애는 아가 안 오고 여가 와버리지 않느냐, 라고 해서

여 불규칙에 들어가는 게 하다 아닙니까?

이런 예문이 더 좋은데.

어쨌든 3번은 ㉢에 어미 불규칙이라는 건 문제가 없고요.

또 4번 가봅시다.

치르다가 치뤄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보세요.

치르다는 이를 치러.

ㅡ탈락 규칙용언이야.

아까 이야기했던 쓰다나 크다나 아프다처럼

ㅡ만 딱 빠지는 것까지는 규칙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흐르다의 경우에는 흐러가 아니라 어간에 ㄹ이 덧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어간 불규칙 용언.

그러면 4번은 ㄴ이 아닌 ㄱ이 되었어야죠.

그다음 5번에 수놓다는 수놓아로 가는데 파랗다는 파래로 간다.

우리 ㅎ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어간 쪽에서는 ㅎ이 빠지고

어미 쪽은 너무 다양한 어미들이 온다.

좀 일반적이지 않은 어미들이 온다고 봐서 ㅎ 불규칙이

어간, 어미 불규칙이 아니겠습니까?

하양다를 예를 들어 모음 어미가 붙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아가 와야 돼.

아가 오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결과물을 보니까 하애야.

그 이야기는 무슨 소리다?

어간 쪽에서는 ㅎ이 빠지고 어미 쪽에서는 뭐가 온 것이다?

이상한 어미가 온 거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간, 어미 불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이게 어미 쪽이 일반적 어미인

모음 어미가 왔을 때는 둘 다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있어요.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다에 명사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명사형 어미로 뭘 넣어주면 되냐면, 음을 넣어주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매개모음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과물은 그냥 좋음, 이렇게 쓰잖아요.

나는 매우 좋음,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뭐 써야 돼?

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결과물 어떻게 나오죠?

하얌, 이렇게 써야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어간 쪽에 ㅎ 빠지고

어미 쪽에도 으가 왔다가 빠진 거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간, 어미 불규칙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오긴 와요.

똑같이 받침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음이 와요.

그런데 으가 왔다 빠지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ㄱ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어간, 어미 불규칙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었고요.

그다음에 31번도 해보는 거야.

활용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는 규칙, 하나는 불규칙으로 나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 그 적절한 사례가 바로 3번에 해당하는 거죠.

3번을 보게 되면 소나무가 마당 쪽으로 굽다.

이때는 어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굽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규칙성을 지니고 있는 변화 없는 놈인데

빵을 굽다는 어를 붙였더니 구워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애가 바로 ㄴ 불규칙 용언에 해당하죠.

4번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속 시간을 이르다, 약속 장소에 이르다.

이렇게 나왔는데 둘 다 어떻게 되죠?

이르러로 가죠.

애는 지금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보면 일러로 활용되는 게 있고 이르러로 활용되는 게 있습니다.

둘 다 불규칙인 건 맞아요.

애는 어간 불규칙, 애는 어미 불규칙에 해당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어간 쪽에 ㄹ이 덧붙어들었기 때문이고

밑에 있는 것은 아예 어미 쪽에 아나 어가 아닌 러가 와버렸기 때문에

어미 불규칙,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 불규칙에.

그래서 이르다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말하다의 개념이면

누구한테 일러, 이렇게 활용이 되지만

도달하다의 개념할 때는 이르러로 가는 거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러 불규칙으로

어미 불규칙 쪽에 해당합니다.

하나가 규칙이 아니에요, 둘 다.

다음 32번, 우리는 기이니까 어간, 어미 모두 바뀌는 걸 골라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ㅎ 불규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걸 뭐하러 봐, 굳이.

진짜 볼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이거 딱 보자마자 기, 어간, 어미 모두 바뀌는 거?

ㅎ 불규칙밖에 없는데?

그러면 ㅎ 불규칙 뭐지?

오다, 파랗다, 짓다, 묻다, 하다 중에서 ㅎ 받침 쓰고 있는 거

파랗다밖에 없어요.

2번 딱, 20초짜리.

이런 문제를 길게 길게 풀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길이상으로는 32번이 길어 보이지만

문제는 빨리 풀 수 있다.

33번은 짧아요, 보기가 얼마 없어요.

그런데 읽고 적용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애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런 건 불완전 활용이라고 하는데요.

활용이 사실은 어미가 다양한 게 붙어야 되는데

다양한 어미를 붙이기 좀 어려운 경우.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걸 찾아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번 답지는요.

내가 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원형을 달다예요, 빌려달다.

그런데 벌써 기본형으로도 어색하지 않아요?

보세요.

누가 나한테 빌려달라고 했어, 라고 할 때 이것도 어쨌든 사전에 찾아보려면

기본형 어간 달에 기본형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입맛이 달다, 할 때는 워낙 많이 쓰겠지만

이렇게 뭔가를 내놔.

내가 얻으려고 할 때 이때의 달다는 그는 달다, 이렇게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형부터가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 애는 이렇게 언제 쓰는 거야?

라고, 라.

라가 되는 거죠.

라, 라고 하는 종결어미랑 연결하는 거 말고는 좀 쓰기가 어렵죠.

다른 거 붙여보세요.

달다, 달아, 빌려 달아, 빌려달고.

다 안 되잖아.

2번 가볼까요?

즈음하다가 원형이겠죠.

그러면 언제 즈음하여는 쓸 수 있는데

즈음하니까 즈음하지 즈음한다, 즈음해라.

다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3번에 모시고는 사전을 찾으면 모시다를 찾아야겠죠.

고 말고도 다른 거 쓸 수가 있죠.

모시고, 모시니, 모시지만, 모셔서 다 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인 거야.

이거는 방법 없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어미들을 넣어보고 적용해보고

어울리는지 어색한지를 확인해보세요.

4번, 서슴지 않다, 라고 할 때의 지는 어울렸지만

서슴고, 서슴으니까, 서슴으면 이상하거든.

5번에 더불어.

이것도 사전 찾으면 뭐 찾아야 될까?

이웃과 더불어, 라는 그 단어를 사전에 찾으려면 더불어다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더불어다, 라는 기본형조차도 어울리지 않아.

우리는 되게 어색해.

그래서 더불어다, 더불어지만, 더불어게 다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이때 어만 어울리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유형은 어미 쪽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어말 어미, 어말어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애네는 참 귀찮아요.

이 유형 상당히 귀찮아요.

왜? 외우는 개념이 아니야.

일일이 예문 보고 확인해보고 예문 보고 확인해보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좀 공평한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구성이 좀 많잖아요.

볼게요.

1번에 보게 되면 일단 설명은 맞는 거죠.

였이나 았이나 였이나 전부 다 과거 기능하는 선어말 어미라는 거.

이거는 질적으로 알고 있을 거고.

다음 2번에 보게 되면, ㄴ에서는 기본형이 조이다.

나사를 세게 조였다.

이걸 형태소를 구분하게 되면

조이다에 과거 선어말 어미 였에다 다다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먹였다 같은 경우도 먹이.

좀 차이가 나죠.

이거 한번 구분해볼게요.

조이다는 조이었다인데 먹였다는 먹이었다가 아니라 먹이었다죠.

이런 차이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먹이다의 이는 먹게 만들다, 라고 하는 사동 접미사죠.

즉 그 이야기는 기본적인 먹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나사를 조다, 라는 말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기본형 자체가 조이다예요.

그래서 애는 여기까지가 어근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어간 영역을 잡는 건 여기까지가 어간인 거는 분명해, 활용에 있어서.

애네들은 어미가 되는 거고 이때 과거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애는 접미사가 더해진 구성이고

애는 전부 다 어근.

그러니까 어근만 따진다면

우리는 이 조이와 먹을 어근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3번에 보게 되면, 그래요, 그 이야기네요.

ㄱ하고 ㄷ에서 ㄱ의 경우는 하였다니까 공부를 하였다.

이거는 또 쪼개면 어떻게 쪼개야 돼?

하+였이죠.

그러니까 과거 선어말 어미가 있, 았도 있지만

하다 계열 뒤에서는 그냥 였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였과 이 였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애는 줄어진 거고 애는 그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3번은 그 차이죠?

4번 보게 되면 았과 였의 차이는 바로 뭐다?

모음조화.

양성모음일 때 았 쓰고 음성모음일 때 였 쓰고.

이 모음조화는 기본적인 거.

이제 5번에 보게 되면, 말이 됩니까?

부모이었다 아니죠? 학생이었다.

부모이다할 때 었다.

그런데 이 받침 없을 때는 줄여 쓰게 되는 거니까 부모였다.

학생이었다는 안 써요.

이렇게 줄여서 였다인데.

그런데 이였이 줄여서 였이 됐다고 해서 의미가 다르냐, 그럴 리가.

그러니까 이건 받침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줄이고 못 줄이고의 차이인 거지

의미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35번 가보도록 할게요.

35번은 역시나 선어말 어미의 시제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5번만 한 번 보시면, 읽으셨다, 라고 하는 단어에

형태소를 판단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읽, 으시, 었다.

뭐가 먼저 나온 거야?

선어말 어미는 두 종류라고 했어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인데

당연히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앞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5번은 잘못, 뒤집혀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36번 갑니다.

보기에 ㄱ부터 ㄹ에 대한 예 적절한 거 골라보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설명할 게 아니에요.

5번만 확인해본다면, 내가 어제 마신 약은 생각보다 안 쓰더라.

이게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중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ㄹ의 설명에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중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화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상태를 타인이 관찰하듯 진술할 경우, 라고 했어요.

이때 더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거죠.

야, 내가 어제 꿈을 꿔는데 꿈속에서 내가 대통령이더라,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찰한 듯 설명할 때

이때 더를 쓴다.

그런 예를 들었어야 돼.

꿈속에서 내가 대통령이더라.

그런데 5번에는 어제 마신 약 생각보다 안 쓰더라, 라고 하는 건

경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건 절대 타인을 관찰하듯 한 게 아닙니다.

다음 37번 보시면,

37번 문제가 전체적인 어미가 뭐가 있냐는 걸 물어보는 문제 구성이 되죠.

다시 한번 용언의 구성을 보면 용언은 활용이 가능한 가변어이기 때문에

어간하고 어미를 쪼갤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떠한 단어도 마찬가지로 어근은 있어야 되는 거죠.

단어의 중심축.

이 단어의 중심축 앞뒤로 접두사나 접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여기까지가 우리 어간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만약에 어미가 있다면 당연히 필수적인 건 뭐야?

어말어미는 있어야죠.

끝에 나오는 어말어미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형태로는

이렇게 어근과 어말어미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이겠죠.

그러나 간혹 앞쪽에 선어말 어미가 올 수도 있어요.

결국 어미는 이런 구성인 거죠?

그런데 이때 선어말 어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높임과 시제성을 나타내는 앓, 앓, 쟈, 는 이런 것들입니다.

문제로는 어말어미 영역인데 어말어미는 뭐가 있느냐 물어보고 있죠?

문장을 종결시켜주는 어미를 종결어미라고 하죠.

그 종결어미는 평서문을 만들든 의문문을 만들든 명령문을 말든든 청유물은 만들든

이런 식으로 감탄문을 만들든 해서 그 어미들이 5개 종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장을 끝내지 않고 계속 이어줄 수 있는 연결어미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주는 대등, 종속 이런 거 했고

아까 본용언, 보조용언 사이에 있는

아, 게, 지, 고 같은 것도 연결어미라고 하죠?

그리고 분명 서술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 내의 기능을

좀 바꿔주는 걸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성어미로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었던 거죠.

이 책의 틀을 딱 가지고 계시면 어렵지 않죠.

그래서 37번 문제는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1번에 구나.

당연히 ~했구나, 감탄형 종결어미 어말어미에 해당합니다.

다음, 어디 갔다 오시지? 의문형 종결어미 어말어미에 해당하겠죠?

3번, 일찍 가는 이유가 뭐니.

일찍 가는 이유, 는은 뭐의 기능입니까?

이유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 해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ㄴ이 아닌 ㄷ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 형은 밥을 먹었으나, 하고 문장이 연결됩니다.

연결해주는 연결어미.

다음, 지금은 운동하다가 운동하기로 명사처럼 바뀌었던 거죠, 전성어미.

따라서 ㄷ에 해당합니다.

간단하네요.

간단하지만, 모르면 안 간단해.

다음 겁니다.

38번 가보도록 하죠.

보시면, 이거는 선생님이 문장을 다 쓸 수 없어.

그래서 쉽게 가봅시다.

어차피 우리 지금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어미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데었다.

중간중간에 낀 거 뺐어요.

서술어만 잡아볼게요.

끓였다가, 식혔다.

접어서, 넣었다.

달아서, 쪄다.

1번, (가), (나)에서는 앞절과 뒷절의 사건이 모두 과거에 일어났지만.

애, 애, 애, 애가 전부 다 과거에 일어났대요.

찌개를 먹다가 혀를 덴 거니까 데기 전에 먹었었던 거죠?

둘 다 과거에 일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나)에서는 끓였다가 식혔다고 했었는데

끓이고 나서 식힌 거니까 이미 과거형이 여기에 했, 었 들어가 있죠?

식히었다.

과거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끓이었다가 과거형.

그래서 모두 과거에 일어났다.

그런데 (가)에서는 (나)와 달리 다가로 연결된 앞절에서.

즉 이 다가로 연결된 앞절에서 현재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났대.

어디? 여기는 지금 끓이었어 있죠.

과거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현재 선어말 어미가 있습니까?

다가 앞쪽에 어근밖에 없잖아.

현재 선어말 어미가 뭔데, 는이죠.

물론 이걸 선어말 어미로 취급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문법적 차이가 있긴 해요.

그런데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는을 따끈따끈한 평가원에 선어말 어미로 문제를 낸 적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먹는다는 경우 사전상에 찾으면 어간과 어말어미.

이렇게 해서 보는 해석이에요.

우리가 표준 국어 대사전 기준으로 가면.

그런데 수능을 관장하고 있는 평가원에서

이때 는을 선어말 어미로 잡아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먹겠다, 먹는다, 먹었다와 동등한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몰랐다 쳐.

다가 앞에 선어말 어미가 있냐는 거야.

일단 그것만 가지고도 틀린 거 확인할 수 있잖아.

현재 선어말 어미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그런데 38번 문제 봐 봐요.

여러분이 얼마나 문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얼마나 쓸 거냐와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즉 만약에 이 문제가 문학이었어.

선생님이 만약에 1번을 봤어.

1번이 답이야.

그러면 선생님은 2, 3, 4, 5를 안 볼까요?

비문학이야. 2, 3, 4, 5를 안 볼까요?

선생님은 다 봐요.

왜? 내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감상의 초점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을 가는데

가다가 그럴싸한 답이 또 하나 보여요.

그러면 뭐야, 답이 왜 2개지? 하고 견주어 봐요.

그러면서 1번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보고 4번도 심도있게 다시 보고.

보니까 4번이 맞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고.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이럴 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문법은 어떨까요?

1번 같은 경우 딱 봤을 때 현재시제 선어말 어미?

없는 게 보이는 걸 어떡해.

이거는 1번 문제를 풀 때 1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어.

이런 거 아니잖아.

답 나오면 선택하고 고르는 거잖아요.

문법은 고르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고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2, 3, 4, 5를 풀면 안 돼.

왜 봐? 1번이 답인데.

여기 다가 앞에 선어말 어미가 있다잖아.

없는데 1번이 답이지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2, 3, 4를 뭐하러 봅니까?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잖아요.

이런 데서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문법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파트예요.

모르면 해매는 거고.

2번 가보세요.

(가)하고 (다)에 뒷절의 시제과 과거임을 확인해야

다가와 아서, 어서가 쓰인 앞절의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

(가), (나), (다)예요.

과거 선어말 어미 과거, 과거 썼어요.

그런데 이 다가나 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 자체가 과거나 현재를 나타내주는 어미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선어말 어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 행동 다음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애네가 과거를 썼다는 건

이것도 당연히 과거에 벌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2번이.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너 그거 먹다가 졸겠다.

이러면 무슨 이야기야?

졸겠다 이러면 미래형이죠.

그러면 먹다가가 과거예요? 아니죠.

너 먹다가, 앞으로 먹을 건데 먹다가 졸겠다 이러면

먹다가가 미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즉 애나 애 같은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가 없기 때문에 시제를 아직 몰랐는데

뒤에 절에 나와 있는 과거 선어말 어미 때문에

애네가 과거에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3번도 (가), (라)에서 모두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는데도

다가와 아서, 어서가 쓰인 앞절의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안 썼어.

그렇죠, 앞절에 없잖아요.

4번에 (나), (다)에서는 다가, 아서, 어서 앞에 쓰인 앞절의 사건이 끝난 뒤 뒷절.

그러니까 끊었다가 식힌 거고 접어서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벌어지고 나서 뒤에 벌어졌다는 이야기고

5번에 보게 되면 (다), (라)에 모두 아서, 어서로 연결되었는데

(라)는 (다)와 달리 앞절의 사건이 뒷절의 사건에 원인, 이유.

즉 접어서 넣은 건데 접은 게 이유가 돼서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접어서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내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동생이 깬 거는 이유와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8번은 중간중간 필요 없잖아.

그래서 서술어 위주로 보고 선어말 어미가 뭐냐.

이거를 빨리 꼬집어내고 풀면 되는 거야.

39번은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그 예문이요.

A, B, C, D, E라고 한번 적어보자고요.

보기에 A, B, C, D, E.

여러분, 지금 5번부터 올라와 볼게요.

5번에 음운 환경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거 뒤에 해당합니까?

B죠.

앉아라, 떡어라.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 결정하는 거.

다음 4번, 듣는이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 뭘니까?

A죠.

듣습니까 하십시오체, 듣소 하오체.

3번, 진술 의문 감탄 따위, D잖아요.

그치겠다 진술, 그치겠니 의문, 그치겠구나 감탄.

뒤에 조사 연결되어있는 거 E가 되겠죠.

다 밑줄 쳐져 있는 부분 고, 느냐 밑줄 쳐져 있는 부분 뒤에 가가 붙어있으니까.

그러니까 1번에 시제 이야기는 선어말 어미로 가능.

이것도 사실 종결어미로 시제가 판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문 안 봐도 사실 1번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찾아 올라온다면

더 수월하게 풀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40번은 지난 시간에 채, 체 이거 외웠던 것처럼

이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뭐냐면, -대랑 -데랑 구분하는 거.

이건 그냥 외우라고 선생님이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라예요.

-하다고 해, 이거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거 -대할 때 H가 여기 해에서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놈은 -데라고 하는 거 -더라 쪽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한 회상이죠.

-하다고 해, 이거는 자기가 본 거 없어요.

이거는 전해 들은 거예요.

이런 의미 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 3번이었던 것이고.

41번 같은 경우도 정답 좀 수월하게 4번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수월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왜 4번이에요?

답은 알았다면 왜 4번이죠?

㉠을 보니까 으려고는 선어말 어미와 결합 못 한데.

지금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 별표 표시되어있을 때 보면

가셨으려고 하시겠으려고 할 때 여기 선어말 어미 있는데 안 되는구나.

그러면 문제는 가시려고는 왜 돼?

가시려고 지금 보시면, 여고 앞에 시는 선어말 어미 아닌가?

높임의 선어말 어미잖아.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린 이유는 선어말 어미와

결합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높임만 사용했을 때는 가능했다.

시제 선어말 어미를 못 쓰는 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42번 문제, ㄱ, ㄴ, ㄷ.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연결어미.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전성어미는 빼고, 양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할 건데 연결어미 쪽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있다고 했죠?

대등, 종속, 그다음에 하나 뭐? 보조적 연결어미.

이때 이 보조적 연결어미가 본용언하고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사이에 오는 어미였어요.

이때 아나 어나 게나 지나 고나.

이런 놈들이 오는 건데.

지금 빨리 판단해볼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은 이어진 문장 만들어주는 거.

이어진 문장은 우리가 뒤에서 볼 텐데

이 구성을 좀 빨리 찾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 쪽을 지금 보시면 A, B, C, D, E 중에서 어떤 거 있습니까?

B 보이죠.

출전하게 되다.

이때 되다가 보조용언.

그다음에 D, 고민하고 있다에서의 있다가 보조용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언과 용언 두 개 이어주고 있을 때 본인지 보조인지 판단하시면

B에서는 계가 보조용언, E에서는 고가 보조용언인데 이거에 해당해요.

그래서 ㉔부터 좀 골라내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문장이 이어주는 게 나머지 A, C, E가 될 텐데

그 A, C, E 중에 이걸 또 외워야 되죠.

우리 이거는 이어진 문장을 할 때 다시 정리해봅시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주는 연결어미는

이거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못 외우지만

대등하게 이어줄 수 있는 연결어미는 좀 한정되어있으니까

외워줄 수 있었던 말이에요.

-하고, -하며, -하는데, -하지만 그리고 -든지, -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6개 종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등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딱 연습하고 준비하다.

연습하는 행위랑 준비하는 행위랑 대등적으로 이어주는 거였죠?

이거는 정답 4번이었는데

이 지식은 이어진 문장 부분에서

조금 더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푸는데.

43번, 이것도 그냥 풀면 되겠고요.

마지막 44번까지 해봅시다.

지금 ㄱ에 해당하지 않은 걸 골라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ㄱ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앞뒤 문장의 주어가 같다, 그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걸 이야기한다.

이랬으니까 애가 바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1번에 연결어미 따져보면 으며, 2번에 며,

3번에 으며, 4번에 며, 5번에 머가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다 으며인데 왜 이게 대등과 종속으로 나뉠 수 있나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보셔야 돼요?

앞절이 없으면 뒷절이 안 생기는지.

앞절이 없어도 뒷절이 생기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적이냐 이어지는 거냐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1번 갑니다.

우리는 함께 걸으며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걷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져요.

다음 2번, 음정에 주의하며 부르자.

그러면 음정에 주의하면서 붙어야 돼요.

이게 앞에 있으면서 벌어져야 돼요.

다음 3번에 보게 되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러니까 미소를 짓는 동작을 진행하면서 다가와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통과했다.

몰아쉬는 동작 같이 진행되면서 함께 벌어져요.

그런데 5번에 보게 되면 일부는 버스를 이용하며

일부는 지하철을 이용한다가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

지하철을 이용하며 버스를 이용한다.

누구는 지하철을 이용하고 누구는 버스를 이용한다.

서로 독립적이라는 이야기죠.

즉 1번, 2번, 3번, 4번은 앞 문장과 뒷 문장의 동작이

한 번에 벌어지는 거지만 5번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벌어진다.

이 차이를 뒤서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품사 마지막 편인데 이번 시간보다는 시간이 적게 걸릴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 풀어주시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